

특집
원고

‘스마트 콘텐츠’

스마트 콘텐츠로서의 디지털 개인출판 읽기.쓰기

: 개인출판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모니카
(M&K출판사 대표, 한국전자출판학회 이사)

1. 문제제기

“사이버공간은 흩어져 있는 의식을 스스로와 통합시킨다. 모두가 이웃이 되는 보편도시에서 지상의 거주자들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시도들을 결집시킨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도래할 사이버문화 속에서 온갖 형태의 자신들을 파헤치는 세계적 시장과, 모든 언어 형태를 사용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도서관과, 모든 권력을 사용하는 세계적 도구와, 모든 경험을 시험하는 세계적 실험실과, 온갖 종류의 행정 형태들을 시도하는 세계적 의회와, 온갖 분쟁과 그것의 해결 형태를 찾아보는 세계적 재판소와, 인간이 발견한 모든 형태들을 각자가 탐색할 것을 권유하고 가르치고 문화의 형성과 전달에 공헌하려는 사람들이 모두 교수가 되는 세계적인 학교 간의 차이점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 마치 모든 전통의 계보들이 각자의 내부로 집결하듯이, 모든 정신적 계보들이 이 공간에 모여들어 집결한다.”[1]

사이버문화 시대, 현대인의 정신화 과정과 미래 문화를 설명한 피에르 레비(P. Levy)의 이야기에서 스마트 시대, 스마트 콘텐츠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

에서는 ‘디지털 개인출판’을 ‘스마트 콘텐츠’로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일반 대중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문자적 콘텐츠를 읽고 쓰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장르문학 전문 사이트의 작품과 셀프 퍼블리싱 콘텐츠 등의 유료 디지털 출판물과 블로그, 미니홈피, 최근의 SNS 등의 무료 디지털 콘텐츠 발행까지를 포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인류가 서로 접속하는 사이버공간의 삶 속에서 집단지성을 실천하며 개인적인 감수성을 완성해가는 데 가상공간이 필수적이라고 말한 데에는 인간의 정신화 과정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다. 사이버공간의 본질을 ‘인간 정신의 집단적 성찰’로 파악한 것인데, 여기에서 스마트 콘텐츠로서 개인출판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레비식으로 ‘정신계가 인류의 지적 역능을 객관하는 장’이라면, 의식과 사고를 확장하고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서 읽고 쓰는 모든 노력이 정신화의 기지로서 인류를 모여들게 하고 있다. 더 많은 인구가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을 근거지로 삼아, 세계 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일상, 그들이 생각하는 바, 그들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서로의 행복과 슬픔의 저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세계 사회와 문화를 파악하고 문제

를 상호 해결하고, 세계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세계존재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요구 아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창작과 소비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감은 인간의 정신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인식하고 세상을 인식하게 할 것이며, 여기에는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의 읽기 쓰기가 엄청난 도움이 된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디지털 읽기·쓰기를 통해 쏟아내는 콘텐츠들을 그저 사소한 농담으로 지나쳐버렸던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듯하다. 디지털 개인출판을 통해 우회적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실제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통테일의 무수한 끝에는 더 이상 어느 기업이나 직업, 신분, 이웃 또는 혈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우정, 성향 그리고 공동의 관심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새로운 공동체들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소비공동체가 아니라 자유로이 생각하는 프로슈머들을 위한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2]

과거 개인적으로 책을 발행하는 1인출판, 자비출판의 출판콘텐츠들은 펴마의 시선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스마트 콘텐츠로 인식되며 새로운 출판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들이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에서 유명해지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출판 현장에서 감히 출판을 꿈꾸지도 못했던 콘텐츠들이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기획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출판되고 온라인 전용 콘텐츠들이 판매되고 있다.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콘텐츠는 아니지만 SNS 읽기·쓰기에 열광하는 인구는 또 얼마나 많은가. 그들이 책을 읽는 대신 SNS에 몰입하는 것은 읽고 싶은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며, 쓰고 싶은 것이 있

고,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 콘텐츠로서 개인출판 읽기·쓰기를 살피고자 하는 문제제기는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디지털 세상에서 읽기와 쓰기 문화의 변화로 시작된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은 콘텐츠의 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수단이자 스마트 콘텐츠의 관점에서 디지털 읽기·쓰기 패러다임을 창조하여 제2의 문예부흥을 이끌 ‘읽기·쓰기를 토대로 구현된 대중문화 현상’으로 제안될 수 있다.

천정한은 우리나라에서 1900년대 초반의 폭발적인 쓰기 열풍을 근대적 자아의식, 표현 욕망, 낭만적 연애 등과 연관 지어 연구하면서 “새로운 코드들이 글쓰기와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3]며, 그러한 시절의 글쓰기가 갖는 특징은 “새로운 제도와 규범에 맞게 쓰는 것뿐 아니라, 개성적으로 아름답게 써서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 문제였다”[4]고 설명한다. 근대에 편지글과 일기문이라는 산문적이고 일상적인 쓰기 방식이 유행하면서 1인칭 소설과 서간체 문학 같은 특정한 문학 형식의 발전 배경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써야 하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시대적 요구와 만나면 일정한 읽기·쓰기 장르와 형식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에서 창작되는 콘텐츠를 스마트 미디어의 시대적 산물이자 작품으로 재평가해야 하는 당위이다.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 안에서 읽고 쓰고 있는 모든 콘텐츠들은 장담하건데 미래에 펼쳐질 전혀 다른 유형의 출판, 즉 스마트 콘텐츠를 예고하는 움직임이다. 이것은 책이나 출판으로 불리지 않을 수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왔거나 익숙했던 종류의 콘텐츠가 아닐 확률이 더 높고, 기존 출판이나 기타 미디어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서서히 그것에 적응해 가야 한다. 인쇄, 글, 책, 출판, 작가, 독자, 독서라는 우리가 살

고 있는 현재의 삶과 현실은 이제 다른 차원에 접어들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결코 사라져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2.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의 매체 미학 고찰

벤야민(W. Benjamin)의 문화로서의 기술, 보드리야르(J. Baudrillard)의 예술의 혼종화, 플루서(V. Flusser)의 기술적 상상력, 맥루언(M. McLuhan)의 기술적 사유와 지각, 볼터(J. D. Bolter)의 테크놀로지들 간 문화적 경쟁 과정을 통한 재매개, 란도(G. P. Landow)의 텍스트의 재구성, 올셋(E. J. Aarseth)의 디지털 텍스트 미학으로서의 사이버텍스트 등의 디지털 매체철학 이론을 종합해보면 이는 디지털이라는 매체 환경 아래서의 디지털 미학을 규명하는 일이 다름 아니다. 노르베르트 볼츠(N. Bolz)는 디지털 시대 현대인의 모든 지각은 매체 의존적으로 되었고 결국 매체가 우리 지각을 규정하므로 모든 미학을 매체미학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전통적 미학의 범주로는 지금의 미적 상황과 미적 체험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지금의 예술작품에서 재현되는 것도 아니고, 예술이 선이나 진리라는 개념과 반드시 연관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성학으로서의 매체미학은 이제 예술작품 그 자체에 대한 분석, 또는 아름다움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예술작품과 수용자 간의 관계를 문제 삼는다. 즉 대상을 수용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5] 그는 매체미학의 출발점은 ‘감성적 지각으로서의 미학 또는 감성학’이라고 결론짓는다.

현재 대중은 아날로그 읽기·쓰기의 미학에 관한한 확고한 기준과 논리를 지니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그러한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당

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재매개와 재구성의 논의를 참조하는 것이다. 이제 디지털의 논리를 통해 아날로그 읽기·쓰기 역시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름다운 글, 좋은 글, 미학적으로 훌륭한 글들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글들은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답고, 좋고, 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역시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자면 확고불변의 진리이거나 미학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날로그 읽기·쓰기의 미학을 바탕으로 개인출판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글들이 쓰여지고 읽히는 지금 이 순간의 읽기·쓰기의 새로운 미학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볼츠의 논의에 기대자면, 미학이란 본래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다. 과거 우리가 작가나 작품, 콘텐츠의 예술성이나 창조성, 독창성에 천착해왔다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개인출판의 형식과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에 어울리는 스마트 콘텐츠만의 매체미학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견지에서 개인출판의 매체철학과 매체미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새로운 문예창작적 읽기·쓰기 활동으로서 개인출판

바흐친(M. Bakhtin)은 담화적 소통을 연구하면서 일상의 ‘대화적 배움’과 ‘자유와 창조성’의 삶을 말하고자 하였다. 인간이 끊임없이 타자와 담화적 소통을 하는 존재라면,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인류는 타자의 언어를 ‘자기화’하게 되고(자기화 과정[6]), 이를 ‘대화적 배움’이라 규정한다. “발화는 대화적 배움으로 채워지며, 그것에 대한 고려 없이는 발화의 문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철학적·학문적·예술적) 사유 자체가 타자의 사유와 상호작용하고 투쟁하는 과정 속에서 탄생하고 형성되며, 이것이 우리 사유의 언술적 표현 형식 속에 반영되

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7] 이를 개인 출판 플랫폼을 통해 인류가 읽고 쓰는 행위의 근거이자 전제로 보아도 좋다. 우리가 개인출판 플랫폼에 글을 끼적이는 것을 개인 차원의 발화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표현에는 타자가 있고 바흐친에 근거하자면 스스로가 타자가 되어 발화한다면 우리가 플랫폼에 글을 올리는 순간 상호작용을 통해 타자에 대한, 타자로서의 나에 대한 세계관, 경향, 관점, 의견이 그 안에서 모이고 교차하고 흩어지게 된다. 개인출판을 통해 읽고 쓰는 모두가 능동적인 대화의 참가자로서 응답과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바흐친은 특히 ‘친밀하고 내밀한 장르와 문체’를 집중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장르와 문체는 사회문화적으로나 사적으로 일정한 의견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음에도 지금까지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가 하려던 이야기에서 우리는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의 기능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내밀하고 친밀한 자기고백적 글을 읽고 쓰면서 우리는 차마 공식적으로는 내뱉을 수 없는 이야기들, 친근함이 전제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 진정으로 자신을 타자화하여 자신의 내면 저 깊은 곳에 숨겨둔 이야기들을 비로소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르의 이야기들을 공식적으로 발행하게 되면서, 우리는 타자에 대해, 세상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고,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대화의 장에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윌리엄스(E. Williams)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고, 좋은 글이 빛을 볼 수 있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거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긴 글을 많이 읽을 겁니다”[8]라며, 디지털 개인출판 행위가 중국에는 언론,

전자 도서관, 원천 콘텐츠의 보관소 등의 기능까지 포괄하게 된다고 예측하였다.

문예창작 활동의 논리와 미학의 기준은 읽기·쓰기 도구와 기술의 발전 양상에 따라 재매개되어 왔다. 결국 개인출판 행위를 새로운 문예창작 활동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제해야 할 것은 바로 읽기·쓰기의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온 전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다. 디지털 개인출판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독자이자 곧 작가인 대중들의 읽기·쓰기 문화 수준인데,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을 통해 시작된 대중의 읽기·쓰기 문화의 확산과 스마트 콘텐츠의 가능성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기 보다는 이를 보다 가치 있는 일로 승화하고 후기인쇄시대의 읽기·쓰기의 주요한 한 현상으로써 역사의 페이지에 남기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아날로그 읽기·쓰기의 미학을 존중하는 동시에 디지털·스마트 콘텐츠 읽기·쓰기만의 매체미학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의 시점에서 다시금 글과 책, 읽기·쓰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아직은 인쇄산업화 시대의 논리와 아날로그 읽기·쓰기 전통과 윤리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만의 논리와 문화가 본격적으로 정립되고 전개되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의 문예창작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세대의 감수성, 그들 간의 대화와 소통이 반영된 스마트 콘텐츠로서의 읽기·쓰기 문화를 확립해갈 필요가 있다. “전자매체 시대,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감수성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텍스트를 쓰는 방법과 매체, 텍스트의 형질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컴퓨터와 더불어 성장한 세대들이 지닌 감수성에 가장 잘 호소하는 형태의 텍스트들이 텍스트 구성의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9]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맞춰 디지털

개인출판 문예창작 활동의 창작과 소비의 논리, 읽기·쓰기 스마트 콘텐츠의 범주와 유형을 정립해야 한다. 스마트 콘텐츠로서의 개인출판 플랫폼의 문예창작과 소비 활동의 사회문화적 반향을 살펴보자.

이 같은 개인출판의 추세 속에서 창작되고 소통되는 개인출판의 콘텐츠를 편집자, 출판사와 플랫폼사의 주도 하에 적극적으로 기성 출판콘텐츠로 편입하고 수용하여, 일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한다면 저자-편집자-출판사-유통 플랫폼사 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저자는 문예창작 활동을 통하여 장르와 디바이스, 시장에 구애받지 않는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편집자는 또 다른 창작자이자 창작자와 동일한 위치를 부여받는 읽기·쓰기의 일원으로서, 집단지성을 활용한 수정과 편집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고유의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출판사는 발행 주체로서 디지털 글쓰기의 결과물을 판매 및 유통함과 동시에, 고유의 채널을 지님으로써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는 저자-편집자-출판사를 하나로 엮음과 동시에 이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스마트 콘텐츠를 활용한 대안적 출판의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다양성의 확보를 통해 소비시장을 진작시키고 개별구성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권한의 분산과 콘텐츠의 다양화는 결국 기존 출판 및 전자출판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콘텐츠의 전문화·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그것이 콘텐츠 자체이건 유통 루트이건 다양성의 확보가 출판과 전자출판 활성화의 지름길이자 읽기·쓰기 문화를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다양한 색채를 가진 문화, 한 특성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로 구별 짓는 그 경계가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고 그것이 더 많은 수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의 힘이 된다 하겠다.”[10] 콘텐츠 다양성의 확보라는 명제를 수행한다면 더 많은 대중의 문예창작 활동과 소비를 진작하고 스마트 콘텐츠화 할 수 있다. 콘텐츠 창작자인 저자와 편집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인 출판사, 콘텐츠 유통 플랫폼사의 디지털·스마트 문예창작 활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4. 개인출판의 확산을 통한 글로벌 문화의 구현

디지털 개인출판의 확산은 단순히 하나의 문화권에서의 읽기·쓰기 인식 변화만을 이끌어내지 않는다. 이는 지역적 개별성의 전지구적 확산을 가능케 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레비이다. 그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사회학·철학적 차원에서 이론화하였다. 레비는 “장차 컴퓨터는 기계적인 것이 될 것이며, 인간은 생생하고 감각적인 존재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와 종교처럼 과학 기술은 인간의 정신화를 향한 근거지가 될 것이다”[11]고 단언한다. 레비의 이러한 개념은 하르트만으로부터 “기술낙관주의에 무의식적으로 통화되었다”[12]는 비난을 받았지만 이는 SNS 같은 범지구적 실천 현상이 있기 이전의 논의인데다가 레비의 개념은 기술결정론을 계승했다기보다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기에 인간의 창의성과 정신적인 에너지가 향하는 방향과 그러한 현실에 대한 탐구로서 ‘디지털의 집단적 창작과 소비 과정’에 대한 편견 없는 진단에 가깝다. 특히 레비의 ‘집단지성’ 개념은 ‘글로벌’이라는 화두로 연결된다. “중심부와 주변부가 지역적인 기준보다도 집단지성의 탈영토화된 디지털망에 대한 참여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세계의 대도시 내부에는 주변부와 소외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 집

단들이 둥지를 틀 것이며, 모든 것이 뒤섞일 것이다.”[13]

시공간의 밀착이나 근접이라는 가치가 과거 소통의 기본 조건이었다면 디지털 세상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러한 시공간적 근접성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디지털 시공간에서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에서든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즉각적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이 서로 이해될 수 없는 언어의 간극을 메우며 글로벌의 형식적 가능성을 실현하게 해주었다면,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은 글로벌적 소통과 대화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 “글로벌은 세계만이 아니라 지역 역시 중심이 되며, 맹목적인 표준화·보편화 논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14]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개성과 다양성이 담보된 로컬 콘텐츠를 무제한적으로, 전방위로 노출시키고 있다. 개인출판 플랫폼에 게재되는 세계시민의 일상적 디지털·스마트 읽기·쓰기 콘텐츠들은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상호소통을 이끌면서 글로벌 문화의 구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가시화하는 전제는 디지털 기술력이다.

어오양(E. C. Eoyang)은 지식의 세계화에 대해 연구하면서 세계를 하나로 소통하게 해줄 글로벌의 가능성을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발견한다. 언어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전바벨기-바벨기-후바벨기로 구분하면서, 전바벨기는 하나의 언어가 세계를 관통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세계, 바벨기는 신이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징벌로 인간의 언어를 뒤섞고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했다는 지금의 다언어적 세계라고 설명한다. 후바벨기는 세계가,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데, 지금 현재 디지털 기술이라는 언어가 그러한 후바벨기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이다. “기술은 이전 어느 제국도 맞설 수 없을 만큼의 언어의 제국을

가능”[15]하게 한다. 이미 자신의 고유한 언어가 확립된 현재 언어적 제국주의 세상에서 우리는 전바벨기로 돌아갈 수 없다. 전바벨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류의 희망이 실현되는 후바벨기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어오양의 설명은 디지털 기술력이 우리에게 전바벨기로의 회귀를 허락해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보예술부 조지 유 장관은 중국 상형문자, 러시아 키릴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폰트 소프트웨어의 상용화를 발표하면서, “영어 사용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반박 당하게 될 것이며, 인터넷 자체가 다문화적으로 될 것”[16]이라고 단언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은 모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보편 코드이다. ‘유니코드’라고 불리는 컴퓨터 언어는 65,536개의 조합을 가지고 문자와 상징을 표상하는데, 이로서 하나의 코드로 세계 모든 언어의 문자가 고유의 시퀀스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에 다른 언어로 전송되거나 게시되는 모든 텍스트를 나의 모국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영어로 발송되는 이메일이 다른 쪽에 프랑스어나, 독일어로 도착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자동번역 툴을 제공하는 가장 큰 서비스 공급업자인 ‘컴퓨서브 Compuserve’는, 3분 만에 영어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의 세 언어로 자동번역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어오양이 “현대 기술의 전 바벨 ‘유니코드’가 우리의 다국어 능력을 확장시킬 것임을 후바벨기의 미래 실현”[17]이라고 전망한 데는 이러한 자동번역 기술력이라는 스마트 미디어적 배경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에 게재된 산문적이고 일상적인 콘텐츠들이 열람하는 쪽에 자동적으로 번역되어 읽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간의 의사소통이 용이

해지는 후바벨기를 향한 인류의 꿈이 실현되어 우리는 전바벨기로 회귀하게 된 것일까. 어오양의 예측대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누군가의 삶의 소소한 리포트가 지구 저쪽에서 뉴스나 정보 콘텐츠로 읽히고, 개인적인 작업을 게시하고 응답을 구하는 순간 전지구적 프로젝트로 변환되고, 지구 반대편의 의견을 구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글로컬의 응답이 동시에 도착하게 되고, 단절되어 있던 문화는 서로 교차되고 섞이고 얹히며 자동적으로 초문화가 구현되는 것이다. 전지구인의 다양한 견해와 의견, 문학과 산문, 정보와 뉴스, 자료들이 무작위로 게재되는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은 그 자체로 거대한 원천 콘텐츠 저장소이자 초문화의 기지이다. 그야말로 전지구적 정신화의 서돌이자 스마트 콘텐츠인 것이다.

이기상 역시 문화의 보편성과 상대성(특수성) 논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가치임을 강조한다. “현대의 문화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문화가 교류·융합·통합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8] 민족문화와 인류문화는 나름대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민족문화가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가치, 생활방식, 이상실현 등이 어떻게 인류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19] 특히 스마트 콘텐츠의 글로컬 가능성에 힘입어 비로소 구체적 보편성을 지니게 된, 개별과 특수성의 논리로 창조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은 웹과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비로소 교용하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친구의 안부를 묻고, 회사나 학교에 나가서도 스마트 폰으로 자료를 찾고 질문을 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집에 돌아와 자기 전

까지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친구의 일상을 읽고, 글로벌 화제의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즐기고, 그야말로 현대인의 일상은 스마트 미디어에서 시작되고 스마트 미디어로 끝난다. 이렇듯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든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현대인의 일상, 삶과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일상성’은 스마트 콘텐츠의 속성마저 바꾸어 버린다. 정치도, 이데올로기로, 종교도, 학문도, 소소한 잡담이나 댓글마저도 디지털과 만나는 순간 일상의 차원으로 귀속된다. 이 같은 일상적 차원의 모든 일들이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을 통해 글로컬 출판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일상적 아이디어들이 점점 일반화되고, 넓은 공간으로 개방되며, 활용법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무릇 모든 인간의 삶과 문화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확장되듯이, 개성과 다양성의 문화가 세계적인 화두로 확장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대중문화의 주류라고 느껴온 것은 사실은 대중이 그것을 선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별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주어진 것일 수 있다. 만약 월드컵 축구처럼 대중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거대한 주류가 없었다면 대중의 취미와 그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20세기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추세를 이루었던 개성화는 21세기에 이르러 계속 지속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완전하게 날개를 펼칠 것이다.”[20]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에서는 개성으로 무장한 개개인 누구나 출판콘텐츠의 창작과 소비에 있어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읽기·쓰기 스마트 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의 구성에 있어서도 개인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해지게 되었다. 최근 관심사로 링크된 SNS 집단이 글로컬 문화콘텐츠 시장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은 이러한 개성과 일상성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제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콘텐츠로서 출판콘텐츠 생산과 소비 활동의 뉴 패러다임을 창출한 디지털 시대의 인류는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웹2.0이 인류에게 ‘개방, 참여, 공유’를 선물한 것처럼 디지털 개인출판 현상은 인류에게 산문적이고 일상적인 콘텐츠를 통한 ‘대화’와 ‘소통’을 가능케 했다. 디지털 시대에 나고 자란 세대에게 디지털 읽기·쓰기란 무엇인지 고심해보면 우리의 미래적 과업은 더욱 분명해진다. 디지털 매체의 역동성과 일상성에 익숙한 그들,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정보와 지식의 참여와 공유에 익숙한 그들, 소비자이기보다는 생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들, 놀이와 일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서 일상 자체를 놀이나 게임처럼 인식하여 지루하고 따분한 일 보다는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과제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그들에게 ‘글로벌 출판콘텐츠’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출판콘텐츠’ 이상의 그 무엇’이 될 것이다.

표. 글로벌 개인출판 플랫폼의 확산 가능성

동인	글로벌 가능성
글로벌 테크놀로지 환경 ; 자동번역 기술의 확장	-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이 확보한 보편성을 통해 개별적 논의를 전지구적으로 확장. - 출판콘텐츠의 글로벌화 촉발.
문화 다원주의 시대	- 개인출판 플랫폼은 문화의 상대성과 문화의 교류·융합·통합을 추구하는 문화다원주의의 기반으로 기능.
일상성, 개성, 다양성의 문화	- 디지털 개인출판 플랫폼을 통해 일상적 차원의 모든 일들이 글로벌 초문화적 출판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보. - 출판콘텐츠의 내용과 형식의 구성에서 일반대중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짐.
디지털 세대의 디지털 문화	- ‘개방, 참여, 공유’의 문화, - ‘산문적이고 일상적인 콘텐츠를 통한 대화와 소통’ 문화.

참고문헌

1. Pierre Levy, World Philosophie, Odile Jacob, 2000, 196쪽.
2. 홀름 프리베·사샤 로보, 『디지털 보헤미안』, 두행숙 옮김, 크리에디트, 2007, 343쪽.
3.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156쪽.
4. 같은 책.
5. 심혜련, 『20세기의 매체철학: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린비, 2012, 284, 285쪽, 볼츠, 재인용.
6. 미하일 바흐친, 『말의 미학』, 김희숙, 박종소 역, 길, 2006, 387쪽.
7. 위의 책, 391쪽.
8. 트위터 공동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는 2012년 보다 긴 글을 출판할 수 있는 ‘미디어(Medium)’이라는 플랫폼을 세상에 내놓아 다시 한 번 화제를 일으켰다. 미디어은 후기 인쇄시대 SNS에 짧은 글, 소모적 글, 휘발성 잡담만이 통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좀 더 길고 좋은 글을 읽게 될 것이라는 예견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긴 글 전용 SNS 개인출판 플랫폼이다. 장문의 시나리오, 소설, 논평, 시리즈, 연재 칼럼 등이 게재되고 있다. 아직은 정제되지 않는 글들이 많고 적극적인 사용자도 적어 플랫폼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시점이지만 윌리엄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일축한다. 아래 URL은 에반 윌리엄스의 인터뷰 출처 : <http://techcrunch.com/2013/09/14/twitter-co-founder-evan-williams-lays-out-his-vision-for-medium/>
9. 김요한, 「하이퍼텍스트의 구조적 특성과 하이퍼텍스트 문학」,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제11집, 한국브레히트학회, 2003, 338쪽.
10. 이수진, 「프랑스어권 독립 만화와 독립 만화 출판사가 제시하는 문화 다원화의 대안적 지평」,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14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05, 226쪽.
11. Pierre Levy, 앞의 책, 183쪽.
12. 위의 책, 424쪽.
13. 위의 책, 42쪽.
14. 박치완·김성수·조소연 외, 『글로벌문화콘텐츠 어떻게 그리고 왜?』,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9, 237쪽.
15. Eugene Chen Eoyang, Two-Way Mirrors.

Cross-Cultural Studies in Glocalization,
Lexington Books, 2007, 178쪽.

16. 위의 책, 186쪽.

17. 위의 책, 177쪽.

18. 이기상, 『콘텐츠와 문화철학』, 북코리아,
2009, 81쪽.

19. 위의 책, 82쪽.

20. 홀름 프리베·사샤 로보, 앞의 책, 340쪽.